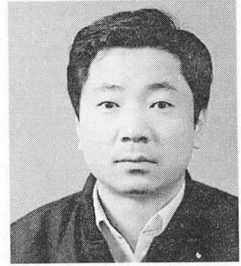


“돼지병 얘기들”



김영옥
(한국양돈개발원장)

1. 돼지콜레라와 돈단독의 추이

돼지값이 좋아지면 돼지콜레라와 돈단독 같은 전염병의 발생은 격감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올 가을은 좀 문제화 될 조짐이 보인다.

그 이유는 지난 여름의 유례 없는 혹서의 장기지속과 긴 장마와 폭우 등으로 돼지의 건강을 많이 해쳤고, 더욱이 심각한 인력난으로 예방접종마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백신의 운반기술 과정에서 폭염 속에 실시한 생독·생균백신의 면역형성능력의 장해요인이 너무 많이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직사일광, 37℃를 훨씬 넘는 실내온도, 40℃를 웃도는 돼지체온, 암모니아나 탄산가스의 면역형성장애, 사료변패에 따른 곰팡이독소의 부작용, 그리고 고온다습스트레스로 식욕부진 및 체력약화 등

“
돼지값이 좋아지면 돼지콜레라와 돈단독 같은 전염병의 발생이 격감하는 것이 상례이나 올 가을은 유례 없는 혹서와 긴 장마로 크게 문제 될 것 같다.

”
이 이들 백신의 면역을 불완전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해마다 여름을 지나고 나서 가을이면 돼지콜레라와 돈단독의 피해가 증가하곤 했지만, 금년은 돼지에게 가장 나쁜 기후조건이 장기간 계속되었으므로 심히 염려된다.

돼지콜레라와 돈단독의 면역상태를 조사의뢰하여 불완전면역이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보강접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오제스키병」 근황?

솔직히 나도 모른다.

지난 봄 충남 서산의 해미에 있는, 이 길영씨 농장에서의 발생이 금년들어 처음이었다.

하반기 정기검사가 끝나보아야 실제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왜 이 처럼 우리 기억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 병의 검사를 연2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종돈장을 상대로, 그리고 연1~2회 도축장에서 검색하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일 것이다.

양돈호황을 맞아 수없이 팔리고 입식되는 종돈과 육성비육돈 그리고 자돈들이 전국 양돈장들에 이 병의 검사없이 마구 유통되었고, 지금도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도 발생보고가 없다.

돼지가 얼굴에 「오제스키양성돈」이라고 써붙히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용케도 「오제스키 병양성돈」들은 유통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오염지역의 돼지들도 중간상인들을 통해,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아예 행정적 이동제한조치도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고, 진단키트의 사용을 자유화 그리고 의무화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진단키트에 의한 자가검사나 판매구입시 이 검사를 시행치 않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생산자들의 이병에 대한 박멸의지나 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된다면 몇해 지나지 않아서 만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생산자단체가 앞장서서 재원을 확보하고, 온갖 노력을 한 다해도 어려운데 이 일은 정부에서나 해줄 일로 생각하는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하기가 한국양돈산업이 존폐위기에 놓였음을 안다면 어찌…….

3. 설사병과 폐염들

최근들어 신생자돈설사병인 대장균증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돈가상승에 따라 초산돈이 급증했는데다가 긴 장마와 폭우 그리고 혹서는 이 설사병을 급증시키기에 충분

했다.

농장마다 장마대비와 혹서기대비가 미흡하여 조발성대장균증 뿐만 아니라 3주령 백리와 이유전후의 설사피해가 컸다. 특히 열사병의 후유증으로 유방염과 무유증이 병발한 농장들은 그 자돈들의 피해가 막대했다.

자돈들의 백리와 이유전후 설사에서 로타바이러스의 합병이 그 병세를 악화시키고 치유를 어렵게 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최근 도입되어 모돈에, 임신말기에 2회접종하는 설사병혼합백신이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

금년들어 어느 해보다 홍막폐염의 피해가 극심하다.

전국 어느 농장할 것 없이 기후의 악조건과 인력난에 의한 관리소홀로 이 홍막폐염의 피해는 극심했고, 이번 가을과 겨울에도 계속적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 더욱이 금년 12월부터 전국 도축장에서 실시할 항생제와 설파제의 잔류검사 때문에 11월부터는 아예 설파제나 항생제를 비육돈사료에 첨가할 수 없게되어 그 피해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돈사의 정기소독과 위생적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항생제나 설파제의 사용이

“
전국 어느 농장 할 것 없이 기후의 악조건과 인력난에 의한 관리 소홀로 홍막폐염 피해가 컸는데, 금년 가을과 겨울에도 계속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
”

규제되므로 돼지들에게 호흡기질병의 혼합백신접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일교차, 밀사, 이동합사투쟁스트레스 그리고 돈사내의 유해가스 발생억제에 유의해야 한다.

환기의 중요성은 폐염돈들을 환기가 아주 잘 되는 장소로 격리시켜 놓으면 아무런 치료를 해주지 않아도 70~80%가 자연치유되는 것을 보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위축돈들을 돈사 중 제일 환기가 잘 되는 돈방에 수용해두면 다음 이동시나 출하시에 위축돈이었던 돼지들이 타 정상돈보다 더 잘 자라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필자연락처(02)566-1795~6>